

플랜트건설 노사 6차 교섭 “대화”

전문건설기업 45사 참여 임금·단체협상 실시 ... 쟁의행위는 가결 상태

전국플랜트건설 노사가 10월18일 6차 교섭을 벌이는 등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

플랜트 노사는 울산 근로자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노조의 협상 대표들과 사용자측인 45개 전문건설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가졌다.

노조는 앞서 70개 전문건설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25개 기업은 내부 사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노사는 그동안 기업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0월18일 처음으로 대거 참석해 협상이 진행됐으나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맞섰다.

노조는 협상방법과 관련해 “노조와 사용자측 전문건설기업들이 모두 모여 협상하는 공동교섭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기업별로 규모와 매출액 등 제반사정이 달라 개별교섭으로 협상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그동안 전문건설기업에 소속된 조합원 유무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노조가 협상장에서 조합원 유무를 확인해주기 위해 조합원 명단을 기업측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사용자측도 종업원들 가운데 조합원들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대화에 성실히 나서기로 했다.

노조도 “10월14일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돼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화국면에 접어듬에 따라 일단 협상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9>